(붙임) **2. 미성년 해부실습 경험과 트라우마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적) 기억 사례**
- KARA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금지법 통과촉구 시민참여서명 응답에서 발췌

이름	주소	미성년 해부실습에 대한 경험
강*정	경기도 하남시	중학교때 생선 해부를 하면서, 마취가 잘 되지 않아 고통에 펄떡이는 생선을 보며 반 전체가 죄책감과 공포에 떨었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일 뿐더러,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교육입니다.
백*아	대구시 수성구	현직 의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교육 및 수련과정 중 무분별한 동물 실험이 많았다고 느꼈으며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이라도 희생되는 동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조*서	서울시 서초구	생명과학 전공자입니다. 교수님이 시키셔서 아이들 해부 수업 어쩔 수 없이 진행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해부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부가 되긴 커녕, 그들이 얻는 건 생명에 대한 경시뿐입니다. 3D 로 만든 영상 자료나 해부도를 보고 같이 그려 보고 모형 만드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박*정	경기도 고양시	중학교때 해부실습했던 붕어와 개구리 그 생물수업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구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심한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분명 그날 생물선생님께서 생명존중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몇몇학생들은 거의 장난으로 난도질했으며 해부끝난 사체들 묻어주며 엄청 울었던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해부실습으로 얻은 동물의 장기에대한 교육적 학습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문*진	서울시 송파구	저도 어릴때 해부시간이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에 울지 않은 친구들이 없었고 아수라장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익숙한 듯 어서 하라고 부추기던 그때가 트라우마입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황*솔	전라도 군산시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2 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동물 학대나 동물 해부실험 등 동물이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학대를 당하거나 해부를 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명운동이 작은 행동일지라도 큰 힘이 되어서 꼭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라	서울시 용산구	초등학교때 붕어와 고등학교때 개구리 해부 시간에 우느라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수업시간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	부산시 연제구	중학교 시절 토끼와 개구리 해부의 기억이 20 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기억을 상처로 안고 살게 하는 교육체계는, 폭력의 학습이자 그 둔탁함으로 생명을 모른체 하는 삶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살해를 교육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송*진	대구시 동구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도 초등학교때 과학방과후로 해부를 했습니다 저는 파는 오징어로 해부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징그럽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리 죽었었어도 생명인데 해부는 안 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캠페인에 동참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학생도 참여 가능하죠??^^)
양*인	수원시 권선구	어렸을때 생쥐,금붕어 실험한 경험이있는데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쥐만보면 소름돋습니다.어렸을적엔 해야만하는건줄알고 임하게되었는데, 교육적이긴 커녕 마취가 잘되지않아 살아서 움직이는걸보고 충격을 받았고, 실험후 묻어준다는 소리에 하나의 생명을 아무렇지않게 죽이는 것에 대해 정말 비윤리적인거 같고, 비교육적입니다.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였음 합니다.
홍*민	경기도 광명시	저도 어릴때 닭이랑 개구리 해부실습? 실험? 을 했는데 선생님이 자르면 피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며 알려주셨는데 실수로 가위 끝으로 건드려서 피가 엄청 나왔

		던 장면이 각인되어서 안 잊혀집니다. 어린나이에 하기에는 그다지 바람직한 실험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 실험 이후에 학교에 우리가 수업 때 썼던 닭이 급식으로 나온다거나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드셨다더라 같은 소문도 돌았었어요. 어린마음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영	대전시 서구	초등학교 때 황소개구리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불쌍합니다. 그저 해부를 하고 부위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남자아이들은 해부 수업을 장난처럼 여겨 개구리를 고문하고 잔인하게 여러 부위를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 같아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유*언	충청도 홍성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 학년 유동언 이에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요 학교에서 동사모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을 만들어서 활동중 이에요 주로 모피,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친구들에게 알리는것으로도 저는 몃마리의 동물의 희생이라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카라 공식블로그를 보다가 이 서명운동을 보고 동참했어요 저는 동물 해부가 공부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것도 엄연한 동물학대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학교에서 친구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마취도 하지않고 커터칼로 학대를 해요. 그때마다 학대당하는 동물이 너무 불쌍해요.
유*	부산시 해운대	미성년자도 싫을 수있고 끔찍한 기억으로 남거나 이로인한 트라우마가 될수있는데 왜 의사도 묻지않고 동물에게도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교육방식을 따르게 해야하는건지 도통 납득이 안갑니다. 어릴때부터 잔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건가요? 저도 초등학교 5 학년때 개구리실험을 한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엄청나게 징그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뭘 배웠냐고요? 배갈린 개구리보고 12 살이 뭔 생각을 할까요? 그 개구리의 희생으로 12 살의 우리들은 과연 뭘 배웠을까요? 뭣 때문에 그 실험을 했는지는 기억조차 안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별 도움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그 수업을 하기 위해 일부러 죽여 장난질하는 것도 맘에 안 듭니다. 오히려 작은 존재의 존엄성상실을 하게 만드는 수업입니다. 약한 것 사람 이외의 작은 것은 죽이고 괴롭혀도 죄의 의식을 없애버리는 수업이라 생각되네요. 자신이 아픈것이 아니므로 생각의 감각이 상당히 무뎌지게 만드는 안좋은 성향으로 흘러갈 수있다 생각합니다
박*영	서울시 강남구	저또한 학생이었고 책으로봐도 충분한 해부실습을 강제로 했던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빠질수 없었고 잔인하고 징그럽고 살아있는 애를 죽여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구요. 책이나 시뮬레이션, 인형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줘야하는 교육기관에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림	인천시 중구	요즘같은 시대에 이걸 아직도 하고 있었나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초등학교 때 했던 개구리해부실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었죠. 그당시 남자친구아이는 어떠한 감정도 없이 개구리 눈알을 빼서 터트리더군요. 이게 맞는 교육 방법인가요? 어떠한 생명에도 존엄성이 있다는걸 가르치는게 좋은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제 아이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동물원도 가고 있지 않죠. 제 아이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붙임) 3.카라에서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부모형 교구 및 실제 대여 사례/후기

개구리 해부실습 모형	
쥐 해부실습 모형	

청주 대성고	

후기 설문 문항

1.(살아있는)개구리 해부 실험과 비교해봤을 때, (모형 실습을 통해서도)내장 기관의 관찰을 잘 할 수 있었나?

2.모형 해부를 통해서도 생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나?

A : “우선 1,2번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두 그렇다고 답해주었습니다”

느낀점

“실제 개구리 해부 실험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실험에 임할 수 있었고 실제 실험에서 잘 관찰하지 못했던 허파를 자세히 관찰 할 수있어 좋았다.”

“마취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었고 실제 생물을 죽일때의 죄책감이 없어서 마음이 좀 더 편했다.”

“개구리 생체 해부를 할때에는 마음이 편치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모형해부를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져서 좋았고 실험하기에도 유용했다.”

“개구리 생체 실험때보다 더 청결하게 진행됬고 개구리 엑스레이 사진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다.실험 환경적 부분이 더 좋아 대체 수업이 더 편했다. 개구리를 직접 해부도 하고 모형으로 장기를 비교해보며 더 심도있게 알 수 있었다.”

공주 한일고

실습 후 느낀점

“우리 학교에 있는 의학 동아리들로 인해 죽어왔던 많은 동물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작년에 토끼를 죽이는 일을 내가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부 대체 실험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 찬성했고, 대체 해부 실험 영상도 내가 촬영해 보았다. 사실 해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했었는

데 이제 그런 고민이 해소된 듯 하다.”
“우리가 1학년 때 해부를 했을 때에는 실수로 방광을 터뜨려서 관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해부 키트는 그런 점이 없어서 좋았다. 또 해부 후 동물 사체 처리 과정도 복잡해 마무리도 힘들었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키트로 해부를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의 희생을 없앨 수 있는 동물 해부 대체 실험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